

##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1. 복음, 교회, 그리고 '교회됨'의 윤리
2. '교회됨'의 한국적 읽기, 하나의 시도

### III. 나오는 말

---

\* 이 글은 2011학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이 글은 2011 한국복음주의신학회(2011.4.23)에서 발표한 '복음과 교회: 하우어워스의 ecclesial ethics'를 수정·보완한 것임.

---

• ABSTRACT •

---

This paper is an interpretation of Stanley Hauerwas's ethics in Korean context. Hauerwas has earned the nickname, 'ecclesial ethics' for his ethics. Actually, Hauerwas set it up as an ethics for church or a church-dependent morality. Focusing on Jesus narrative and church, Hauerwas insists that the first task of church is to be itself.

Now, Korean church faced to civil condemnations through mass-media. Some ethicists thinks that the target and method of church reformation must follow the civil criteria. But this paper insists that moral reformation of church must be pursued *via* gospel.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erprets Hauerwas's point as being church *via* Jesus narrative. According to Hauerwas, Jesus narrative is the core value which must be embodied in church.

In spite of criticism of 'sectarian withdrawal', the ecclesial ethics of Hauerwas gives very important insights for church in Korean context. For example, all the actions of church (sermon, activity, and morality, etc.) must enact according to Jesus narrative. And moral problems of church must be treated *via* evangelistic method. Now, Korea church must seek the sanctification according to Jesus narrative.

**Key words** : Ecclesial Ethics, Being Church, Narrative Ethics, Jesus Narrative, Korean Context

---

## I. 들어가는 말

교회다움이 그림고 교회됨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현주소는 곤혹스러움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안타까움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교회’를 윤리적 성찰의 중심에 놓은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제안,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 그 자체가 되는 것’(the first task of the church is to be itself)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sup>1)</sup> 한국적 읽기를 위한 과제를 성찰하고자 한다.

한 가지, 일러둘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흠잡을 곳 없이 탁월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에게 쏟아졌던 많은 비판들을 몰라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우어워스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자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바라기는 이 글이 하우어워스 윤리의 소개 혹은 재탕을 넘어 그의 문제의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성찰하게 하는 ‘한국적 읽기와 적용’의 바른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sup>2)</sup>

1)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30.

2) 이 글은 하우어워스를 소개하거나 그 윤리의 일방적 수용을 의도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대해서는 ‘소종파적 퇴거의 비판’을 비롯하여 다양하고도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개진되어왔으며, 그 각각은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비판들이었다. 이 글에서까지 하우어워스에 대한 비판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듯싶다. 더욱이, 필자가 하우어워스를 대신이라도 하듯 각각의 비판들을 낱낱이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교회다움이 절실했던 오늘의 한국교회를 위해 하우어워스의 관점을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하우어워스 한국적 읽기’의 한 시도임을 밝혀둔다.

## II.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복음과 교회

### 1. 복음, 교회, 그리고 ‘교회됨’의 윤리

#### 1) ‘ecclesial ethics’의 특징과 배경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교회윤리’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가 교회의 윤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추구했기 때문일 듯싶다. 무엇보다도, 하우어워스는 윤리의 근본이 되는 질문들을 변경시킴으로써 ‘기독교윤리의 재편(reframing)’을 이루어내었다.<sup>3)</sup> 그의 용어대로 하면, 기독교윤리의 개혁(reform)을 위한 시도 혹은 기존의 기독교윤리에 대한 도전장이라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교회됨』(A Community of Character)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시도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견줄만한 일이라는 점을 암시했다.<sup>4)</sup> 물론, 종교개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겸양을 표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기존의 기독교윤리 특히 사회윤리에 도전장을 내밀고 기독교윤리의 개혁을 요구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하우어워스의 시도는 기독교윤리의 방향전환에 대한 요구일 듯싶다.<sup>5)</sup> 기독교윤리의 근본질문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는 마치, 리처드 니버(H. R. Niebuhr)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what must we do?)’를 묻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what is going on?)’를 물어야 한다고 했던 것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우어워스는 니버(Reinhold

---

3) Michael, G. Cartwright, “Afterword: Stanley Hauerwas’s Essays in Theological Ethics: A Reader’s Guide” in Stanley Hauerwas, ed. by John Berkman & Michael Cartwright),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30

4) Stanley Hauerwas, 『교회됨』, 27.

5)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163-188.

Niebuhr)의 ‘사회윤리’, 혹은 마틴 마티(Martin Marty)가 이름 붙였고 스탭 하우스(Max L. Stackhouse)가 전개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 기독교적 정책제시를 통한 현실참여를 제시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우어워스가 제시하는 방향전환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의 대답은 ‘교회’이다. 하우어워스가 교회에 주목하는 것을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다. 삶의 일상적 상투어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처럼<sup>6)</sup>, 하우어워스가 윤리적 초점을 기독교의 일상언어가 지칭하는 대상 즉 ‘교회’, ‘제자도’에 집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하우어워스의 교회에 대한 주목의 이유는 그의 윤리적 성향에서 더 분명하게 반증된다. 하우어워스에게서, 모든 윤리적 응답은 교회에서 시작된다.<sup>7)</sup> 그의 윤리를 ‘교회의존적’(church-dependent)이라 부르는 이유, 혹은 ‘교회윤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들이 바로 여기 있다.<sup>8)</sup>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교회됨’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자유주의 정치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깔려있는 셈이다. 그는 대부분의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지닌 관점 즉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시스템이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진다.<sup>9)</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존재하

6) Michael, G. Cartwright, in *The Hauerwas Reader*, 634.

7) Stanley Hauerwas & William, H.,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있는 사람, 2008), 123.

8)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윤리가 지닌 강조점을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덕의 중요성과 그 회복의 강조, ② 예수 내러티브를 통한 도덕의 이해와 그 윤리의 강조, ③ 복음에 충실한 덕의 사람을 육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④ 현실정치참여보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시민사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⑤ 십자가 정신에 대한 강조 및 비폭력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이다. Stanley Hauerwas, *A Cross Shattered Church: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45.

9) Stanley Hauerwas, 『교회됨』, 20.

는 목적은 국가에 협조하는 기관이 되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책무는 정부정책에 윤활유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개선의 전략을 제안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자유민주주의 혹은 그 어떤 정치체제에 대해서라도 사회정책 및 정치의 보조기관으로 전략해서는 안 된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교회는 그 자체로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윤리는 교회의 교회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세속정치에 참여하려던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자칫 교회가 수행해야 할 진정한 정치적 책무를 망각하게 하는 원인일 수 있다는 우려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하고 사회를 선하게 만들 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교회의 교회됨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무척이나 다양한 요소 들을 반영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마치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하우어워스에게서 현대 기독교윤리학의 다양한 흔적들이 드러난다. 특히 하우어워스가 자신에게 영향을 준 두 명의 진정한 거인들(two really big brain people)이라고 추켜세우는<sup>10)</sup> 맥킨 타이어(A. MacIntyre)와 요더(John Howard Yoder)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맥킨타이어의 영향은 덕의 윤리에 대한 관심 및 공동체주의 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하우어워스의 도덕적,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맥킨타이어의 그것과 궤를 같이 한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구도에서 보면 하우어워스 윤리의 특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하우어 워스는 칸트(I. Kant), 헤어(R. M. Hare), 프랑케나(W. Frankena), 그리고

10)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146

롤즈(J. Rawls)로 이어져온 관점 즉 합리성을 기준으로 도덕을 설명하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sup>11)</sup> 이는 인간을 내러티브의 존재로 설명하는 맥킨타이어가 계몽주의적 기획을 문제 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덕의 윤리학자들 혹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에 비판적인 것처럼, 하우어워스 역시 자유주의를 여러 얼굴을 가진 기이한 현상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미국의 예를 들어 자유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이 역시 맥킨타이어의 영향일 듯싶다.

맥킨타이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하우어워스에게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기독교공동체 즉 교회의 윤리적 과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부분은 요더의 영향일 듯 싶다. 이를 테면, 콘스탄티누스의(constantinianism)에 대한 비판은 요더의 응용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하우어워스가 콘스탄티누스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교회의 동화(accommodation)에 비판적 입장에서 서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4세기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가 이룩한 국가와 교회의 형식상의 일치를 통해 교회가 제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국가에 동화되어 도덕적 타락과 파멸에 이르고 말았다는 문제의식의 현대적 반향인 셈이다.<sup>13)</sup>

하우어워스는 교회가 세속정치가 결탁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는 이러한 결탁이 성경적 신앙을 단지 문화 현상으로서의 종교로 변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sup>14)</sup> 현대적 의미의 콘스탄티누스 즉 교회가 정치적 자유주의와 동화되어 버리는 위기로부터

11) Michael, G. Cartwright, in *The Hauerwas Reader*, 631.

12)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160.

13) Vigen Guroian, *Ethics after Christendom*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4), 1.

14) Vigen Guroian, 1.

교회를 구해내기 위해 ‘교회됨’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하우어워스가 ‘교회로 교회되게’ 혹은 ‘교회됨’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배경에는 교회가 기만과 폭력을 전제하는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대조모델 혹은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다.<sup>15)</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기만적이다. 자유주의가 기획한 도덕적 모험은 개인들로 하여금 각자의 욕구에 따라 살게 하는 문화를 낳았고, 정치적으로는 개인들을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강제력에 의존하는 정치체계를 만들어 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제력과 폭력성을 은닉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과 허위를 극복할 대안은 진리에 기초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요, 교회야말로 그 적임자라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관점이다.

이러한 뜻에서, 기만과 은폐를 넘어서 진리에 기초한 혹은 신실한 정치적 진리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출구를 찾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보면, 하우어워스는 정치적 좌우 혹은 신학적 좌우에 시달리기보다는 양극단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도덕의 근본질문을 재정 의하고 도덕적 모범 혹은 전형들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관점이자 방침이었던 셈이다.<sup>16)</sup> 하우어워스가 역사적 공동체에서 구현된 덕에 주목하고 교회에서 덕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물론, 하우어워스가 ‘교회론’을 본격적으로 파고든 것은 아니다. 동시에 하우어워스에게서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그의 교회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정조준 한 것은 교회에 대한 역사적 이해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윤리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재발견이라는 점에 유의할

15) Stanley Hauerwas, 『교회됨』, 171.

16) Michael, G. Cartwright, in *The Hauerwas Reader*, 632.

필요가 있다. 그는 종교개혁적 전통을 따라, 교회를 교회로 인식하게 해주는 분명한 표식들(marks)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성례가 시행되며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삶을 격려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다.<sup>17)</sup> 이러한 요소들은 개혁전통의 교회론에 충실한 것들로서, 주목할 것은 하우어워스가 올바른 삶(upright life)의 강조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노력(peacemak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가 교회를 덕의 공동체(community of virtues)로 이해하는 것도 평화에 대한 설명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하우어워스에게서 평화는 단순한 갈등의 회피가 아니라 폭력에의 의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덕에 속한다. 더구나 도덕적 탁월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서, 평화를 위해서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즉 교회를 필요로 한다.<sup>18)</sup> 더구나, 교회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확신하며 순례 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그들은 생존확보를 위해 폭력에 의존하기를 거부한다.<sup>19)</sup> 나아가, 교회는 세상이 폭력에 손쉽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거부하고 서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표식이다. 여기에는 요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듯싶다. 교회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정치를 구현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17)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7.

18) Stanley Hauerwas, "Why Truthfulness Requires Forgiveness: A Commencement Address for Graduates of a College of the Church of the Second Chance" in *The Hauerwas Reader*, 319.

19) Stanley Hauerwas, 『교회됨』, 30.

## 2) 복음, 교회됨의 필요충분조건<sup>20)</sup>

하우어워스의 관점들은 현대영미철학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공동체주의 윤리에 속하며, 덕의 윤리(virtue ethics)에 해당한다. 덕 윤리는 도덕의 초점을 특정한 행위로부터 ‘배경’의 문제로 전환시켰다. 성품, 인격적 헌신, 공동체전통, 인간의 탁월성 구현을 위한 조건 등의 요소가 그것이다.<sup>21)</sup> 현대기독교윤리학은 덕 윤리가 기독교적 확신에 주목할 만큼 잘 들어맞는(well-suited) 윤리적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덕 윤리는 기독교적 확신과 양립가능하며, 도덕에 관한 기독교적 확신에 유익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다.<sup>22)</sup>

현대기독교 덕 윤리를 종합적으로 다룬 코트바(Joseph J. Kotva, Jr.)에 따르면, 하우어워스는 기독교와 덕의 윤리를 연관 짓는 가장 강력한 예라 할 수 있다. 성품 혹은 덕의 윤리를 칼빈,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성화(sanctification)의 교리와 연관 짓는 시도였다. 다만, 하우어워스를 포함한 현대기독교 덕 윤리학자들이 덕의 윤리가 기독교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위탁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기초적이고 근본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소홀히 해왔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코트바는 지적한다.<sup>23)</sup> 물론, 코트바의 주장은 그 자신이 덕 윤리의 기독교적 적합성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을 전개하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하우어워스 만큼 덕의 윤리를 복음과 연관지어 설명한 경우도 없다.

필자가 보기엔, 하우어워스를 통해 기독교윤리에서 성경과 교회에 대

---

20) 필자가 이 표현을 쓴 것은 명제론이나 집합론의 용어와 같은 용도는 아니다. ‘필요하고도 필수적이며 충분하고도 자족적인 조건’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

21)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5.

22) Joseph J. Kotva, 2.

23) Joseph J. Kotva, 51.

한 재조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윤리의 중심주제로 복권되고 있다. 특히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요건에 복음을 강조하는 대목은 성경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탁월한 관심을 보여준다.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조건 자체가 복음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무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sup>24)</sup> 여기에서, 하나님 이야기 혹은 예수 이야기란 다른 아닌 복음을 의미한다.<sup>25)</sup> 교회란 성경의 이야기대로 살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검증받는 공동체라는 것이다.<sup>26)</sup> 필자는 하우어워스의 이러한 제안에 두 가지 측면이 담겨 있다고 본다. 하나는 교회됨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됨의 윤리에 관한 것이다.

첫째 측면, 즉 교회됨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자. 하우어워스에게서 복음은 교회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에 따르면, 예수 이야기가 없다면 교회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우어워스가 성경을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로 설명하는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는 삶의 내러티브적 본성에 주목한다. 내러티브의 신학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본성, 자아, 그리고 세상의 본성에 대한 이해에 내러티브가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결코 내러티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sup>27)</sup> 맥킨타이어가 인간을 서사적 혹은 내러티브의 존재라고 말했던 것과 무척이나 닮은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교회가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내러티브, 즉 내러티브의 종류이다.<sup>28)</sup>

24) Stanley Hauerwas, 『교회됨』, 14.

25)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9.

26)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9.

27) Stanley Hauerwas, 『교회됨』, 246.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예수 이야기로 형성된다. 예수 이야기는 예수의 삶의 형식에 상응하는 공동체를 형성시킨다.<sup>29)</sup> 이러한 뜻에서, 복음은 교회의 필수조건인 셈이다. 교회란 이스라엘과 예수 이야기가 말해지고, 실천되며, 청종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말하자면, 복음은 교회를 위한 필요조건을 넘어 필수조건이다. 예수 이야기 즉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핵심이며, 복음이 결여된 교회는 종교기관일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의미의 교회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박힌 구세주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하기 위한 덕을 지닌 자들로서,<sup>31)</sup> 교회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평화’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 가지, 하우어워스의 관점에 대한 이제까지의 비판적 읽기에서 나온 주장들에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 하우어워스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지 못한 인상을 준다. 그의 교회관은 십자가의 정치 혹은 예수의 정치를 강조하는 요더의 입김에 휩쓸린 나머지, 균형 감각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교회가 반드시 비폭력 평화를 위한 공동체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회를 비폭력평화의 정치를 구현하는 곳으로 말하는 것은 전쟁과 폭력으로 찌든 우리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성찰로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복음의 공동체로 인식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균형 있게 묘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측면은 교회됨의 윤리 혹은 실천과제에 관한 부분이다. 교회됨은

28) Stanley Hauerwas, 『교회됨』, 20.

29) Stanley Hauerwas, 『교회됨』, 112.

30)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99-100.

31)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3.

복음에 충실해지는 것 자체로 충분하고도 자족적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예수 이야기는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시킬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육성할 덕(德), 다시 말해 기독교적 성품을 형성시키는 원천이다.<sup>32)</sup> 예수 이야기가 곧 사회윤리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 복음에 나타난 예수 이야기와 분리된 도덕적 강조점이나 메시지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sup>33)</sup>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이제까지 우리들 대부분은 기독교의 교리들 배후에 사회적 질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해 왔으며,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간과해 왔다. 이는 ‘제자도’의 회복을 염두에 둔 진단으로서,<sup>34)</sup> 예수 이야기가 하나의 사회윤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예수 이야기를 사회윤리로 말하는 데에는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가 맞물려 있다. 하우어워스는 내러티브의 신실성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시켜주는 내러티브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sup>35)</sup> 인간을 덕스러운 존재로 육성하는 것은 신실한 내러티브를 가진 공동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인 셈이다.<sup>36)</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주목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성경의 용법이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윤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sup>37)</sup> 예를 들어, 예수 이야기에 사회윤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그 말씀에 충실한 존재가 되기를 힘쓰는 노력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32)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7.

33) Stanley Hauerwas, 『교회됨』, 94.

34) Stanley Hauerwas, 『교회됨』, 84.

35) Stanley Hauerwas, 『교회됨』, 191.

36) Stanley Hauerwas, 『교회됨』, 226.

37) Michaelm, G. Cartwright, in *The Hauerwas Reader*, 640.

이러한 뜻에서, 복음서들은 예수 이야기로 형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의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sup>38)</sup> 마치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 각자가 복음에 충실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본질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진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인 셈이다.<sup>39)</sup>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이야기란 단지 듣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고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고자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40)</sup>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은 교회를 위한 충분한 혹은 자족적 조건이다. 복음보다 앞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른 그 어떤 목적이나 비전은 없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보다 더 우월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가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 2. ‘교회됨’의 한국적 읽기, 하나의 시도<sup>41)</sup>

복음이 교회의 필요충분조건이라면, 혹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복음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과연 교회됨에 충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하우어워스가 한국교회를 위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짚어보자는 뜻이다. 혹은 한국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38) Stanley Hauerwas, 『교회됨』, 107.

39) Stanley Hauerwas, 『교회됨』, 113.

40) Stanley Hauerwas, 『교회됨』, 292.

41) 필자가 하우어워스를 방문했을 때(2010, 6), 그는 자신의 윤리가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읽힐지 궁금해 하면서, 한국적 맥락에서의 실천과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성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의 책, 『교회됨』의 한국어판 서문에서도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글이 한국사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관점이 서구사회가 경험한 도전들에 직면할 듯싶은 현대 한국의 맥락에서 적실성 있는 통찰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Stanley Hauerwas, 『교회됨』, ‘한국의 독자 여러분께’, 8.

성숙할 수 있는 통찰들을 하우어워스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의 한국적 읽기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제안하고 싶은 셈이다.

이를 위해, 하우어워스의 중요한 질문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과연 교회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sup>42)</sup> 하우어워스의 진단은 복음에 충실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육성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sup>43)</sup> 그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배경으로 작용했겠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하고 싶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한국적 읽기에 앞서, 하우어워스가 지칭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현실에 있는 특정한 교회나 교단이라기보다 구현해야 할 교회 즉 '되어야 할 교회'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교회를 비난하는 일 혹은 추켜세우는 작업보다 교회의 교회됨 그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 하우어워스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입장 자체가 복잡한 배경들로 구성된 난처함을 가진 면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을 말하는 것을 하우어워스 자신의 표현대로 옮겨 보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교회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sup>44)</sup> 이와 관련하여, 교회됨을 위한 관심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교회'의 도덕적 실패를 다루는 주장들은 '교회'를 지나치게

42) Stanley Hauerwas, 『교회됨』, 141.

43) Stanley Hauerwas, 『교회됨』, 151.

44) Stanley Hauerwas, 『교회됨』, 24.

제한된 의미에서 다루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미국 개신교, '서방 기독교', 가톨릭 등으로 구분하여 다룬다. 교회란 그 어느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실, 교회에 대한 비판에는 매우 선택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부의 '교회'를 비난하면서 인종주의에 대항할 예언자적 비판과 리더십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교회의 '실패'를 드러내 보이려는 그들의 열심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 남부 백인들의 교회만이 그곳의 유일한 교회인 것은 아니다. ... 신학자들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교회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이다.<sup>45)</sup>

필자로서는, 이 문장을 교회에 대한 일방적 비난과 절망적 매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되심(Lordship)에 대한 신뢰와 교회됨을 위한 신실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고 싶다. 그 바탕에서, 하우어워스의 한국적 읽기에서 제기해야 할 질문들이 있으리라 본다. 하우어워스의 '교회됨을 위한 윤리' 혹은 교회를 향한 윤리적 통찰에서 한국교회가 반추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크게 두 가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한국교회는 과연 '복음'을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데 '필요하고도 필수적이며 충분하고도 자족적인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듯싶다. 교회됨 혹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관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닐지, 필자로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교회는 성경을 예배와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공동체이다. 하지만<sup>46)</sup> 교회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

45) Stanley Hauerwas, 『교회됨』, 211-212.

는 이벤트 혹은 프로그램이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종종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 없는 설교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없다. 설교자의 개인소견이나 기복을 위한 메시지가 복음을 대신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교육이 특정한 틀에 맞추어 복음으로부터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진솔한 성찰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하우어워스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그에게서 오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 단초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liturgy)에 대한 강조가 그렇다. 하우어워스는 예배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강조한다. 교회는 모두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통해 통일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자에 대해 우리가 신실해지는 데 필요한 진리를 배워야 한다.<sup>47)</sup>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예전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바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해져야 하며, 성화(sanctification)는 진리의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 역시 진리에 속한다.<sup>48)</sup>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볼 때 하우어워스의 관심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재발견을 촉구하는 데 있다고 해석해 봄직하다. 그의 윤리를 둘러싼 반론과 질문들 즉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그의 성경해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그가 성경의 권위를 재발견하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할 듯싶다. 사실, 하우어워스의 소속교단, 출석교회, 신학적 훈련의 배경과 경력 등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들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 류의 질문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되어야 할 교회’ 즉 ‘교회됨’에 관한 그의

46) Stanley Hauerwas, 『교회됨』, 141.

47)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159.

48) Michael, G. Cartwright, in *The Hauerwas Reader*, 658.

문제의식, 예수 이야기로 표현되는 성경에 대한 그의 관심에 대한 바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한국교회는 과연 ‘복음’을 ‘세상을 세상 되게 하는’ 데 충실하게 적용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 자성해야 한다. 하우어워스는 이제껏 교회가 예수 이야기에 충실한 덕스러운 사람을 육성하는 데 소홀히 해온 탓에 교회만의 독특한 정치를 인정받지 못해왔으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 뿐 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해줄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sup>49)</sup> 교회는 사회에 에토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대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sup>50)</sup>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일은 곧 세상으로 세상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to make the church the church)’이며, 세상을 세상이게 하는 것(to make the world the world)’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51)</sup>

하우어워스는 세상을 세상이게 하는 것을 ‘섬김의 공동체’(the servant community)가 되는 것이라 표현한다.<sup>52)</sup> 여기에서 섬김이란 직접적인 자원봉사(volunteerism)를 지칭한 것이라기보다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섬김이요,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서의 섬김에 가깝다.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야 한다.<sup>53)</sup>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

49) Stanley Hauerwas, 『교회됨』, 151.

50) Stanley Hauerwas, 『교회됨』, 32.

51)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158.

52)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99.

53)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2.

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비록 죄로 인해 왜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속하는 영역임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뜻이다.<sup>54)</sup> 이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의 ‘대조모델’이 되어야 한다.<sup>55)</sup> 무엇보다도, 폭력을 기초로 삼는 이 세상의 정치에 대해 교회가 사회적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세속정치의 대조모델 혹은 대안이 되기도 전에, 심각한 시민적 비난과 지탄에 직면해 있다.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문제는 비난과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해결책 또는 대안의 모색이다. 필자가 하우어워스에게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며 복음에 충실하게 하려는 그의 통찰이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과 그 비전을 위한 대안 또는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우어워스의 통찰을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이전에, 하우어워스의 접근법 자체에 대한 반론이 일고 있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특히 그의 관점이 시민사회에서 소통을 추구하기보다는 단절 혹은 소종파주의적 퇴거(withdrawal)의 몸짓으로 내몰리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정작 하우어워스 자신은 이러한 우려와 비판에 무척이나 당당하다. 그는 거스타프슨이 자신에게 쏟아 부은 ‘부족주의’(tribalism)라는 논박에 대해 오히려 거스타프슨의 주장 이면에 계몽주의적 기획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한다. 즉 부족들은 공개적이고 관용적인 공동체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퇴행적인 것이라는 생각, 보편적 권리의 인식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sup>56)</sup> 적극적으로

54)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100. 하나님의 주위심(lordship)에 대한 강조로 볼 수 있다.

55) Stanley Hauerwas, 『교회됨』, 171.

56) Stanley Hauerwas, “Why the Sectarian Temptation Is a Misrepresentation: A Response to James Gustafson” in *The Hauerwas Reader*, 109.

로 항변한다. 교회는 결코 ‘부족’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오히려 세상이야말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점을 일깨워주는 공동체이어야 한다.<sup>57)</sup>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윤리가 세상에 대한 거부 혹은 퇴거(withdrawal)의 윤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려는 윤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8)</sup> 세상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섬기되 그 자신의 방식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이다.<sup>59)</sup>

과연, 한국교회는 ‘교회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맥락에서는 소종파 논란보다 더 시급한 것은 시민사회와 교회와의 관계설정 자체가 문제일 듯싶다. 예를 들어, 교회를 ‘시민화’하려는 전략이 그렇다. 교회의 윤리적 갱신을 명분으로 시민의 이름을 빌어 매스컴을 동원하는 시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선정성과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매스컴이 과연 교회의 교회됨을 복음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을까? 시민적 잣대로 교회직제 및 십일조 관행 등을 문제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성품화를 위한 덕의 학교가 되고 덕의 공동체가 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또한 현실정치와 결탁하기 쉬운 교회의 정치적 행보들 역시 복음의 기준에 비추어 깊은 성찰과 개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품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다만, ‘복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들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논변의 여지는 있다. 과연 누가, 어떤 퍼스펙티브에서 복음을

57) Stanley Hauerwas, 『교회됨』, 183.

58) Stanley Hauerwas, 『교회됨』, 30.

59) Stanley Hauerwas, 『교회됨』, 172.

인식하는가에 따라 하우어워스에 대한 이해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더구나 하우어워스가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아 현대적 의미의 덕 윤리학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관점에 채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학적 논변 혹은 찬반의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야기로서의 복음과 콘스탄틴주의적 결탁에 빠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교회됨을 말하는 그의 문제의식만큼은 한국적 읽기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바라기는, 하우어워스의 한국적 읽기가 교회를 둘러싼 신학적 논변으로 변질되기보다는 ‘복음의 성품화’를 위한 모색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우리의 일상언어에 나타나는 ‘몸에 배인 친절’이라는 표현을 응용하자면, 예수 이야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배인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듯싶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덕의 학교가 되어야 하리라 제안한 것처럼,<sup>60)</sup> ‘복음의 성품화’를 위한 관심이 깊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III. 나오는 말

교회의 교회됨을 절감하게 되는 한국적 맥락에서, 특히 시민적 비판에 직면한 오늘의 한국사회에서, 교회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를 성찰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의 아젠더로 제안하고자 했다. 하우어워스가 주장하는 ‘교회의 교회됨’이야말로 오늘의 한국적 시민사회를 위한 교회의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적 맥락에서 하우어워스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윤리를 요약하거나 소개하는 단계를 넘어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대안 혹

60) Stanley Hauerwas, 『교회됨』, 168-174.

은 통찰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그 하나는 복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재인식이 한국교회에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점,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가 시민적 비판에 직면하여 자기방어에 급급해 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덕의 공동체가 되어 시민사회의 대안 혹은 대조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적극적 과제를 제시하고 싶었던 셈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하우어워스’라는 한 사람의 신학적 거장이 제안하는 이론 그 자체에 매료되거나 함몰되기보다 한국적 읽기의 노력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가 2001년 <TIME>이 선정한 ‘the Best Theologian’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 관심이 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복음에 충실한 교회, 복음을 성품화하는 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_\_\_\_\_. *Hannah's Child: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 \_\_\_\_\_. *After Christendo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 \_\_\_\_\_. *A Cross-shattered Church: Reclaiming the Theological Heart of Preaching*.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2009.
- \_\_\_\_\_.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문시영 역. 『교회됨』. 북코리아, 2010.
- John Berkman & Michael Cartwright, ed.,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5.
-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 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 Vigen Guroian, *Ethics after Christendom*.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4.
- Michael, G. Cartwright, "Afterword: Stanley Hauerwas's Essays in Theological Ethics: A Reader's Guide" in Stanley Hauerwas.
- Stanley Hauerwas, "Why the Sectarian Temptation Is a Misrepresentation: A Response to James Gustafson".
- \_\_\_\_\_. "Why Truthfulness Requires Forgiveness: A Commencement Address for Graduates of a College of the Church of the Second Chance".
- 문시영. 『S.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20집. 2010.

논문투고일 : 2011. 04. 27

심사개시일 : 2011. 05. 18

게재확정일 : 2011. 06. 09

---

• 국 문 초 록 •

---

이 글은 하우어워스 윤리의 한국적 읽기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자 시도이다. 교회윤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복음과 교회를 윤리의 중심에 복권시키려 하는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모색하려는 한국교회를 위한 탁월한 통찰이 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대안의 모색에 있어서 하우어워스의 관심을 재평가하고 그 한국적 실천을 위한 과제들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한국교회의 가장 긴요한 윤리적 과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며,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을 윤리의 으뜸가는 과제로 제안한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한국교회를 향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특히 기독교적 덕의 윤리와 공동체윤리를 대변하는 하우어워스의 윤리에서 예수 이야기, 교회 그리고 교회됨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기초이자 비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우어워스가 말하는 예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한 근거이자 교회의 근간으로서, 교회다운 교회 혹은 교회됨을 위한 핵심가치는 예수 이야기로 표현된 복음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예수 이야기 혹은 복음이 교회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복음에 충실한 교회됨을 추구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됨을 제안하는 접근 방식에 있다. 한국교회의 윤리적 안타까움은 열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이지만, 비난과 정죄와 심판을 목표로 매스컴을 통해 교회를 시민적 이슈로 몰아가는 방식보다는 복음적인 교회를 위한 복음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의 윤리적 강조점을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아젠더로 수용하여 교회의 근거이자 핵심가치로서의 예수 이야기에 대한 재발견 및 그 실천 대안의 모색을 위한 기독교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제안이다.

**주제어** : 교회윤리, 교회됨, 이야기윤리, 예수이야기, 한국적 맥락.

---